

삼성신화에 나타난 수 3과 삼분구조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정보수학과 양영오
yangyo@cheju.ac.kr

본 논문에서는 종교, 세계관, 자연세계 등에서 수 3의 의미와 상징성, 삼분구조, 그리고 양·고·부 삼성(三姓)이 건국하였다는 탐라개국신화인 삼성신화(三姓神話)에서 나타난 수 3의 의미와 삼분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삼성신화, 단군신화, 삼분구조, 천지인사상

1. 서론

옛 선현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 세계가 완성되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 보았다.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삼재(三才)라 하고, 천재(天才)는 시간, 지재(地才)는 공간, 인재(人才)는 인간을 뜻하여 이를 삼간(三間)이라 한다. 이처럼 우주는 이 삼재와 삼간의 원리로 구성된다고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삼간관계나 삼분구조 속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노자(老子)는 “도(道)는 一을 낳고, 一은 二를 낳고, 二는 三을 낳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三은 음양의 三슴이다. 三은 二가 양기(楊棄)된 것이 아니라, 음양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융화되는 총체이다. 三은 만물(萬物)을 낳는다. 그러므로 동양사상의 기본은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삼재를 기본으로 하여 음과 양의 화합이 만물을 창조하므로 수 3은 완성과 안정을 상징하고 있다.

한국의 정신문화는 불교와 유교가 전래되기 전,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사상과 홍익정신이 유래한 ‘천부경(天符經)’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천부경은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되어 하나로 돌아가되 그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사람 안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들어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5]).

또한 단군신화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시조신(始祖神)인 환인·환웅·단군의 삼위 일체적 존재나 삼분구조로 그 신성함을 더하게 된다.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인간의 본

성이 육체(Some), 혼(Psyche), 영(Pneuma)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분설(三分設)’(trichotomy, trisection) 또는 삼분구조가 유래한다. 플라톤 이후 진(眞), 선(善), 미(美)는 이상이 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 인식, 의지를 존재의 세 범주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불교에서도 잘 나타나 귀중한 가치의 보배인 삼보(三寶)는 불(佛)·법(法)·승(僧)으로, 각각 ‘진리를 깨달은 이’, ‘진리 자체’, ‘진리를 배우고 추구하는 자’를 뜻하고 있다. 이들 셋이 모일 때 비로소 불교가 성립된다고 한다.

위에서 보듯이 천·지·인이 우주를 형성하고 우리민족은 단군신화 때부터 수 3을 완성, 안정과 조화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하고 이상적인 수이며, 동시에 순음과 순양이 합쳐서 변화를 지향하는 발전적인 수라고 인식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삼성신화, 삼승할망 신화, 삼공본풀이, 삼무정신, 삼다도, 삼제도, 제주의 삼려와 삼보, 3개의 정낭, 속담 등에서 보듯이 삼분구조와 수 3은 신화, 미신, 역사, 생활구조와 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는 3의 뿌리가 녹아있는 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 세계관, 자연세계 등에서 수 3의 의미와 상징성, 삼분구조, 그리고 고, 양, 부 삼성(三姓)이 건국하였다는 탐라개국신화인 삼성신화(三姓神話)에서 나타난 수 3의 의미와 삼분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종교, 세계관, 자연세계와 삼분구조

1) 종교의 삼분구조

<표 1> 종교에서 삼분구조

시 대	삼분구조	의 미
고대 수메르인의 신	아누(Anu), 엔릴(Enlil), 에아(Ea)	하늘, 공기, 땅을 지배
고대 바빌론인	신(Sin), 샤마쉬(Schmasch), 이쉬타르(IShtar)	달, 해, 금성의 신
고대 그리스의 여신	셀레네(Selene), 디아나(Diana), 헤카테(Hekate)	하늘, 땅, 하계를 지배
성모마리아의 모습	동정녀, 어머니, 여왕	
고대 인도 브라만교	브라흐마, 시바, 비슈누	창조, 파괴, 질서의 신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	제우스, 아테나, 아폴로	신화의 최고신, 제우스의 딸(수호신), 제우스의 아들(음악, 시, 빛의 신)
테베의 국가종교	아문, 촌수, 여무트	
불교	불, 법, 승	삼보(三寶) 개념
기독교	성부, 성자, 성신	예수의 가르침, 삼위일체의 교리

종교사에서 3의 역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삼위일체 혹은 세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신의 표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인간의 괴로움은 세 가지 욕심(식욕, 수면욕, 음욕)으로부터 비롯되며, 세 가지 욕심에 의해 빚어지는 세 가지 업(입, 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은 끝없이 이 사바세계를 윤회하게 된다. 불교는 불(Buddha 혹은 부처, 깨달음이라는 뜻), 법(dharma), 승(samgha)을 해탈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근원, 즉 삼보(三寶)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2) 세계관과 삼분구조

피타고라스 시대의 사람들은 세계가 하늘의 쥬피터, 바다의 네프툰, 지옥의 악마 부르트 등에 의해 각각 영역별로 지배되고 있다고 믿었다. 특히 하늘을 지배하는 쥬피터는 머리에서 세 개의 광선을 발산하고 있고, 바다의 신 네프툰은 세 개의 날이 붙은 창을 들고 있으며, 부르트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삼각수(三角獸)라 하여 뿔이 세 개 붙은 짐승을 매우 신성하게 여겨왔다. 또한 피타고라스학파는 절대적인 하나가 대립된 두 힘으로 분리되면서 세계가 창조되고, 두 힘이 셋으로 화합하면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노자는 「도(道)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 셋에서 만물이 나왔다」라고 보았다. 여기서 도는 절대적 실체이고, 하나는 기(氣)이며, 둘은 음과 양, 그리고 셋은 음과 양의 화합체를 말한다(《노자》 제 42장). 인도의 《찬도그야 우파니샤드》는 세계를 삼원적 구조(듣기-이해하기-인식하기, 찰흙-금-철, 흰색-검은색-붉은 색)로 이해했다. 카발라의 주해서인 《조하르》에 따르면 세계는 세 요소, 즉 아브라함파 이삭파 야콥에서 구현된 지혜와 이성과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세의 성서 주석학자들은 역사를 율법 이전의 단계, 율법의 단계, 은총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13세기의 사상 중 성부와 성자의 왕국 이후 성령의 왕국 - 제 3의 왕국의 도래라는 사상이 독일의 제 3제국으로 이어졌다.

철학과 심리학에서도 3을 분류의 수로 이용되었으며, 시간, 공간, 인과율은 인간의 지각과 사고 가능성의 세 가지 유형이다. 그리고 플라톤 시대 이후 진, 선, 미는 이상이 되었으며,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 인식, 의지를 존재의 범주로 보았다.

헤겔은 즉자적 존재, 현존재, 대자적 존재를 존재의 세 양태로 보았다. 정신의 활동은 사유와 의지와 감정으로 구분되며, 마찬가지로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도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또한 마르크스는 정(正), 반(反), 합(合)의 세 과정을 거치며 인류 문화는 발전해간다고 보았다.

3) 자연세계에서 삼분구조

중세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도 수 3은 만물에 깃들여 있으며 자연현상의 삼위일체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으며, 라이문트 뮐러는 1903년의 논문에서 설화와 문학, 그리

고 미술에 나타난 3이라는 수의 중요성을 해명하고자 했다. 그는 <표 2>에서 보듯이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 3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물, 공기와 흙을 보고 세 가지 형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인간의 세계, 신들의 세계, 망자의 세계). 인간은 물체의 세 가지 상태(三態: 고체, 액체, 기체)와 피조물의 세 가지 집단(광물, 식물, 동물)을 발견했다. 물질의 이런 삼태는 불교에서 우주의 만물만상을 오대, 즉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 중의 하나인 화(火)에 의하여 가열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4]).

<표 2> 자연세계와 삼분구조

대 상	삼분구조	대 상	삼분구조
세계	인간, 신, 죽음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태양의 모습	아침, 정오, 저녁	지각의 세계	길이, 넓이(폭), 높이
피조물의 집단	광물, 식물, 동물	삶	생성(시작), 존재(중간), 소멸(끝)
완전체	정립, 반정립, 종합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식물	뿌리, 줄기, 꽃	과실	껍질, 과육, 씨앗
물질(현대화학)	산, 염기, 염류	물리학	질량, 힘, 속도
한 달	상순, 중순, 하순	성적 또는 품질	상, 중, 하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게임의 단계	초반, 중반, 종반
한글의 모습	·(天), 一(地), l(人)	한글 구성	초성, 중성, 종성

인간은 식물에서는 뿌리와 줄기와 꽃을, 과실에서는 껍질과 과육과 씨앗을 밝혀냈다. 또한 태양은 아침, 정오, 저녁에 각각 다른 모습을 갖는다고 여겼다. 실제로 모든 경험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라는 공간좌표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3차원이다. 일체의 삶은 생성과 존재와 소멸로 표상될 수 있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라는 세 국면으로 진행되며, 완전한 전체는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종합(정(1)반(2), 합(3)의 변증법적 사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색채의 혼합은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에서 비롯되며, 시작과 중간과 끝, 탄생과 삶과 죽음, 태양의 세 단계(아침, 정오, 저녁)에 맞춘 하루 세끼 식사, 신호등의 주기(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달의 세 가지 위상을 농사의 주기(파종기, 추수기, 휴농기), 그리고 여신 자신(처녀, 어머니, 할머니)과 동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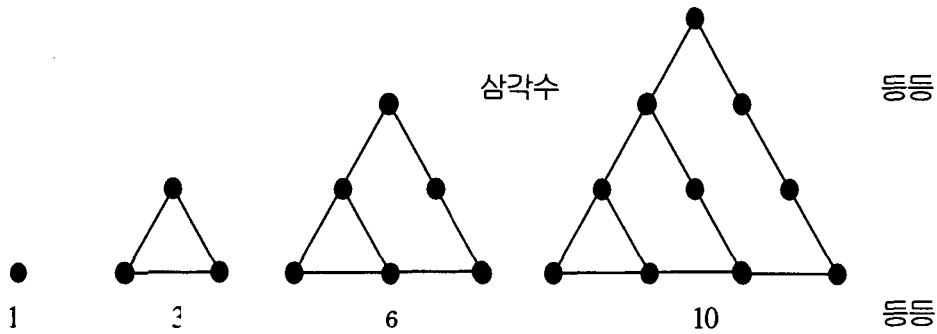
4) 삼각형과 수 3의 상징

수를 하나, 둘, 셋 세는 것은 최초의 창조신화를 가장 순수한 원형적 용어로 다시 말하는 것이다. 원시 부족들은 종종 “하나, 둘, 많이”라고 수를 세고, 수메르인은 “남자, 여자, 많이”라고 수를 세었다. 고대의 수학적 철학자들은 1과 2를 수들의 부모로 여겨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3은 최초의 수이자 가장 오래된 수로 여겼다. 그것의 기하학적 표현인 정삼각형은 베시카 피시스의 문을 통해 출현하는 최초의 모양으로 다자 중 첫 번째 것이다([3]).

3이라는 수는 최초로 기하학 도형을 형성한다. 즉, 세 점은 삼각형을 에워싸고, 세 변은 첫 번째 기하학 도형인 삼각형의 형태를 만든다. 따라서 삼각형은 가장 종교적 상징이 되었다. 피타고라스는 삼각형을 우주적 의미에서 「생성의 시작」이라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비로소 사각형이나 육각성형(六角星型)과 같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각형은 부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마법의 효과를 위해 사람들은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용했다. 연금술에서 두 개의 삼각형을 교차시킨 모양인 육각성형은 대우주와 소우주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의 통일성은 중심과 반지름과 원주의 삼위일체로 나타난다.

수 3의 상징성은 원래 '삼(三)'이 '술 정(鼎)'자를 표현한 것이라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鼎)이란 중국 고대의 국가를 상징한 보물단지(寶器)이다. 이 보물단지는 다소 변형되어 불전(佛前)에 향불을 담아 올리는 그릇으로도 이용되었는데, 세 개[三本]의 다리가 달려 있다. 만일 다리가 네 개이면 지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에 안정하게 서 있을 수 없으나, 세 개이므로 어떠한 요철 바닥에도 튼튼하게 버티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넓은 평면도 세 점만 있으면 결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나 측량판의 발이 세 개로 된 것은 이러한 이치를 응용한 예이다. 책상의 네 개의 다리 길이를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을 조금씩 잘라내고 보니 결국 다리 모두를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우화가 있다. 네 개의 점이 하나의 평형을 유지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이 우화가 뜻하고 있다.

정삼각형으로 배치할 수 있는 수와 같이 아름다운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에 관심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위로부터 순서대로 정삼각형 모양의 돌을 배치한 도형을 가리키며 숫자를 세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1, 2, 3, 4 하고 셀 때 피타고라스는 「당신이 4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10이다. 이것은 완전한 삼각형이며 우리들의 맹세이다」라고 말하였다 한다. 피타고라스가 10을 신성시한 것은 1은 점, 2는 선, 3은 면(삼각형), 4는 입체(삼각뿔)로 나타내며 이들의 합계로서 이 아름다운 정삼각형 모양의 수 10이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림 1> 삼각수

이러한 10과 같이 아름다운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는 수들을 삼각수라고 한다. n 번째의 삼각수를 T_n 이라고 하면 1, 2, 3, ..., n 이라고 하는 n 개의 자연수의 합계가 T_n 이다.

$$T_n = 1 + 2 + 3 + \dots + n$$

수 1은 하나의 수량을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전체와 태극(太極)을 나타내고 있는 수이다. 음양의 이치에서 보면 1은 아무 수와도 섞이지 않은 순양(純陽)의 수이다. 또한 최초의 수이므로 1에서부터 모든 사물이 생겨난다고 본다. 2는 하나가 아닌 최초의 단위이자 최초의 음수(陰數: 짝수)이며 순음(純陰)의 수이다. 또한 음과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등과 같이 둘이 짝하여 하나가 된다는 대립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수 3은 양수의 시작인 순양 1과 음수의 시작인 순음 2가 최초로 결합하여 생겨난 변화수이다. 즉 음양의 조화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가 3이다. 따라서 3은 음양의 대립에 하나를 더 보탬으로써 완성, 안정, 조화,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니코마우스는 “트리아드(triad)는 만물의 완성된 형태이다”고 주장하였다. 짝수인 2처럼 둘로 갈라지지 않고 원수(原數)인 1의 신성함을 파괴하지 않은 채 변화하여 ‘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3이라는 숫자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로서는 ‘완성된 하나’라는 강력한 상징을 띠고 있으며, 트리아드는 분별, 지혜, 경건, 우정, 평화, 조화, 일치, 결혼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홀수이므로 3은 최초의 전형적인 소수이다. 소수는 2 또는 3과 같이 자신과 1만으로 나누어지는 수를 말한다. 소수들은 곱셈을 통해 다른 모든 수(합성수)를 생성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종종 ‘수 체계의 기본원소’라고 불린다. 또한 3은 최초의 메르센소수($2^2 - 1$), 최초의 페르마소수($2^2 + 1$), 최초의 행운의 수, 두 번째의 삼각수, 자기보다 작은 수를 모두 더한 것과 같은 유일한 수 ($3=1+2$) 등을 나타내거나 의미한다.

3. 삼성신화에 나타난 수 관념

1) 삼성신화

제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섬의 북부지방인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대에서 선사문화 유적 발견으로 미루어 보아 선사시대부터 원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 고, 부 삼성(三姓)이 건국하였다는 삼성신화(三姓神話)가 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제주인에 대한 아주 오랜 기록으로는 중국 진(晉)나라의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마한(馬韓)의 서쪽 바다에 큰 섬이 있는데 주호(州胡)라 한다. 옷은 가죽옷을 입고 소나 돼지를 기른다. 배를 타고 한, 중을 왕래하며 장사를 한다'고 하였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동국통람」, 「해동역사(海東釋史)」, 「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등 수많은 문헌에는 '제주는 원래 구한(九韓)의 하나이니 상고 때에는 도이(島夷)라 칭하였으며 그 후로는 동영주(東瀛州), 주호(州胡), 탐모라(耽牟羅), 섭라(涉羅), 탁라(浞羅), 탐라(耽羅) 등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탐라개국에 관하여 가장 대표적이며 널리 알려진 것은 삼성개국신화이다. 그 기록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영주지」 등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줄거리와 내용은 비슷하나 삼성인의 서차와 소거지가 다르다. 고려사 계열은 장이 양을나, 차가 고을나, 삼이 부을나이고, 소거지도 양을나가 제일도, 고을나가 제이도, 부을나가 제삼도로 되어 있으나, 영주지 계열은 장이 고을나, 차가 양을나, 삼이 부을나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고려사」(高麗史) 古記에는 삼을나의 개벽신화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애초에는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 지금의 한라산 북쪽 기슭에 모흥굴(毛興穴)이라 부르는 혈(穴)이 있는데 이것이 삼성혈이다. 만이가 양을나요, 버금이 고을나며 셋째가 부을나이다.¹⁾ 세 사람은 거친 곳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동해변에 자주빛으로 봉해진 나무상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아가 열었더니 안에는 석함(石函)이 있는데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석함을 열어보니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와 오곡(五穀)의 씨앗이 있었다. 사자(使者)가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세 공주(公主)를 낳으시고 말씀하시되 서해(西海)중의 산기슭에 세 신인이 강탄(降誕)하시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베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세 공주를 모시라 하여 왔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베필로 삼아 대업을 이룩하소서" 하고는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1) 고려사를 비롯한 왕조실록, 동국통람, 탐라지(목사 이원진 편저, 1654년), 동국여지승람, 영주지(1450년), 고려사 절요 등 古記와 正史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였다. 양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第一徒)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이도(第二徒)라 하고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해 갔다([11]).

2) 삼사석과 혼인지

삼사석(三射石)은 탐라의 시조인 양·고·부(良高夫, 良은 뒤에 梁으로 고침) 세 신인이 벽랑국의 세 공주를 맞이하여 배필로 정하고 활을 쏘아 거처할 터전을 정할 때, 그 화살이 꽂혔던 돌이다. 지금도 화살을 맞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를 시사석(矢射石)이라고도 하며, 화북동 주민들은 이곳을 ‘살쏜디왓’이라 한다. 이 삼사석은 지방기념물(地方記念物) 제34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화북동 138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삼사석은 직경 55cm 내외의 현무암 2개로 되어 있고, 이를 보호하는 석실(石室)은 높이 149cm, 앞너비 67cm의 규모인데, 이곳에는 김정 목사가 세운 삼사석비(三射石碑)가 있으며, 지금의 석실은 1870년(고종 7)에 중건된 것이다.

혼인지(婚姻池)는 지방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1693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삼성혈에서 솟아난 양·고·부(良高夫) 세 신인이 벽랑국의 세 공주를 맞이하여 혼례를 치르기 위해 목욕재계했다는 연못이다. 중심 너비 50m, 면적이 5백여 평이 되는 혼인지는 그 남쪽에 혼인지(婚姻池)라 음각되어 있는 자연석비가 세워져 있다. 당시 세 공주가 나무 상자에 모셔진 채 발견된 곳이 속칭 ‘괘성계’이며 도착한 해안을 ‘황루알’이라 한다.

3) 삼성혈

삼성혈은 탐라 시조인 양을나(良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곳으로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 제134호의 사적지이다. 삼성혈은 지상에 파인 세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구멍은 품자(品字)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둘레가 6자이고 깊이는 바다까지 통한다고 하여 나머지 구멍은 둘레가 각각 3자인데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흔적만 남아 있다. 위쪽 구멍은 고을나, 왼쪽 구멍은 양을나, 오른쪽 구멍은 부을나가 솟아난 곳이라 전한다.

삼성혈은 조선시대인 1526년(중종 21) 이수동(李壽童) 목사가 그 주위에 돌 울타리를 쌓아 혈(穴) 북쪽에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워 삼성의 후예로 하여금 봄·가을로 제사를 모시게 하고, 매년 11월 상정일(上丁日)에 도민으로 하여금 혈제(穴祭)를 지내게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1698년(숙종 24) 유한명(柳漢明) 절제사가 혈의 동

쪽에 삼을나묘(三乙那廟; 지금의 三姓殿)를 세워 세 신인의 위패를 모시게 하였고, 1702년(숙종 28) 이형상(李衡祥) 절제사가 조정에 건의하여 삼성묘를 가락천 동쪽으로 옮겨 세우고, 신라에 입조하여 성주(星主)·왕자(王子)·도내(徒內)의 작위를 받은 고후(高厚)·고청(高淸)·고계(高季) 3곤제(昆弟)를 배향하도록 하였다. 1772년(영조 48)에는 양세현(梁世綸) 방어사가 바깥 담장을 쌓아 소나무를 심게 하고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향청(鄉廳)으로 하여금 혈제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 희생으로는 생우(牲牛) 3두를 쓰도록 하였다. 1827년(순조 27)에는 이행교(李行敎) 방어사가 전사청(奠祀廳)을 창건하였고, 1849년(헌종 15) 장인식(張寅植) 방어사가 숭보당(崇報堂)을 세워 백재생(百齋生)을 부설하고 절목(節目)을 성급하면서 오늘날의 규모가 갖추어졌다.

4) 삼성사 대제(大祭)

삼성사대제는 탐라개국신인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위업과 유덕을 기리고 후손들의 번영과 제주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봉행하는 제사이다. 이 대제는 1년에 세 번씩 해마다 봉행하며, 매년 4월 10일에 춘계대제, 10월 10일에 추계대제, 12월 10일에 제주 도민제로 모시는 건시대제로 크게 구별된다.

춘계대제는 매년 4월 10일에 거행되며, 양고부 삼성후손들이 삼신인의 위비(제1위 양을나, 제2위 고을나, 제3위 부을나)를 모시고 있는 삼성전(三姓殿)에서 봉행한다. 삼헌(초헌, 아헌, 종헌)과 그 밖의 제관은 삼성후손 가운데서 윤번제로 맡고 있으며, 제사일 1개월 전에는 삼성사 숭보당에서 삼성 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뽑는다.

선출된 헌관 및 제관은 제사일까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제사일 사흘 전에 입제,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면서 제관방에 투숙하여 수신한다. 제물 가운데 특이한 것은 반드시 검은 돼지(豚) 세 마리를 골라 올리고,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시장에서 사들이지 않고 몇 개월 전부터 차좁쌀로 삼성사 구내 수복실에서 정성을 다해 술을 빚고 있다.

추계대제일은 매년 10월 10일로 춘계대제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 양고부 삼성후손들이 모여 삼성전에서 봉행한다. 제관을 뽑는 일은 춘계대제와 마찬가지로 제일 한 달 전인 9월 10일 삼성사 숭보당에서 거행된다.

건시대제는 일명 혈제라고도 하며, 매년 12월 10일에 봉행한다. 춘추대제와는 달리 삼성혈단에서 봉행하는 건시대제는 삼헌 가운데 초헌은 반드시 목민관인 지방장관이 맡는 것으로 그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헌, 종헌은 그밖의 기관의 장과 덕망이 높은 지방유지 가운데서 천거되고 여타 대소제관도 모두 삼성이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 뽑아 탐라개국 삼신인의 유덕을 기리는 한편, 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빈다.

5) 단군신화

단군신화의 내용을 단군 탄생까지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천왕(天王)인 환인(桓因)은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고 아들 환웅(桓雄)이 인

간 세상에 내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을 펴게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천부인(天符印) 세 개와 무리 3천을 주어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에 신시(神市)를 펴게 하였다. 환웅은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명(命)·병(病)·형(刑)·선(善)·악(惡)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 다스렸다. 어느 날 곰과 범이 찾아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간청하자 썩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굴 속에서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하였다. 이에 곰과 범은 이것을 먹고 금기하여 곰은 삼칠일(21일)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중도에 이를 어겨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웅녀(熊女)는 단수(檀樹)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매일 빌었는데 환웅이 잠깐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 아들인 단군을 낳게 되었다.

6) 삼성신화와 삼분구조의 관계

삼성신화와 단군신화에서의 삼분구조를 비교하는 아래의 <표 3>에서 보듯이 삼성신화에서 세 신인(삼성인, 탐라의 시조)인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와 세 공주, 거처인 제일도, 제이도, 제삼도와 삼성대제의 3번 봉행, 제사 3일전 입제, 돼지(豚) 세 마리의 제물, 제사일 사흘(3일)전에 입제 등처럼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삼성신화와 단군신화의 삼분구조

구분	삼성신화	단군신화
탄생	땅(3개의 구멍(혈, 穴))	천왕(환인), 아들 환웅
삼신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	환인, 환웅, 단군
배우자	세 공주(벽랑국의 딸)	웅녀(곰의 여성화)
군·신·민	주권신, 전신, 풍신	풍백, 우사, 운사
거처지	제일도, 제이도, 제삼도	
그외의 삼분구조	매년 3회 제사(춘계대제, 추계대제, 건시대제), 돼지 3마리의 제물, 제사 사흘(3일)전에 입제,	천부인 3개, 삼칠일만에 곰의 여성화

삼성신화에서 왜 수 3이 주로 사용하였는가와 삼분구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삼성신화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3재(三才)를 기본으로 우주가 완성된다는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완성과 안정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삼성신화에서 세 신인(神人)의 땅에서 탄생, 벽랑국 임금님의 세

공주, 사자가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린 점이 곧 그것이다. 단군신화에서 태백(太伯)은 산 이름이지만 '3'위가 천(天), 지(地), 인(人)을 통합하는 제단(祭壇)을 일컫는 말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천부인 세 개란 하늘에서 천자(天子)임을 인정하는 도장 세 개, 혹은 천자가 기록한 책자 세 권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는 우리 민족이나 제주인이 오랜 옛날부터 수 3을 길수(吉數) 또는 신성수(神聖數)로서 취급하였고, 특히 3을 좋아한 것은 단군신화나 삼성신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삼성신화의 삼신인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가 땅에서 솟아나고 이들은 세 공주와 장가들고 활을 쏘아 거처할 땅(제일도, 제이도, 제삼도)을 정하는 것 등이 곧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인이 인간세상인 3위 태백을 내려다보았고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다스리게 한 것 등이다.

셋째는 단군신화에서 환인, 환웅, 단군 등 3신(三神)처럼 탐라의 시조신(始祖神)인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삼위일체적 존재로 그 신성함을 더하게 된다. 이들 탐라개국 삼신(三神)이 셋이면서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삼일신(三一神)적 인식은 '3은 곧 완성된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셋이면서 실은 하나라는 삼일신(三一神)적인 존재,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넷째는 탐라개국 삼신이 각각 세 지역에 분거하여 국가를 세웠다는 표현에서 이 신화는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의 소산이다. 이처럼 세 지역은 안정적이고 완벽한 출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는 삼신인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와 세 공주가 나이 차례로 결혼했다함은 일부일처의 혼인습속을 말해주고, 삼성이 활을 쏘아 서열을 정한 점은 군·신·민이라는 3가지 서열이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삼신인은 각기 주권신, 전신, 풍신으로 숭앙되었을 것이며 이는 군·신·민의 서열로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군신화에서 풍백, 우사, 운사의 3인이 단군을 보좌하는 계층이며, 고구려의 주몽신화의 오이, 마리, 협부가 주몽을 보필하며, 신라의 왕통이 박, 석, 김 세 성씨에 의해 바뀌 왕통을 이는 것 등이 탐라를 개국한 고양부 삼인 유형과 같다([10]).

여섯째는 삼성신화에 “석함을 열어보니 속에는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와 오곡(五穀)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송아지, 망아지, 종자의 삼분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삼성은 세 여인과 혼인하여 처음으로 오곡의 씨를 뿌리고 망아지, 송아지를 방목했다고 한 점은 농경과 목축이라는 문화생활을 영위했음을 말한다(문화기원신화).

일곱째는 삼성혈의 세 구멍이 평지에 각각 수 미터 간격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로 볼 때에 안정적이며 완벽한 출발을 상징하고자 하는 탐라국 사람

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째는 삼성대제는 탐라개국삼신인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위업과 유덕을 기리고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봉행하는 제사로 춘계대제, 추계대제, 건시대제로 구별된다. 이 대제는 매년 세 번씩 봉행되며, 삼헌(초헌, 아헌, 종헌)과 그 밖의 제관은 제사일 3일 전에 입제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면서 제관방에 투숙하여 수신한다. 제물로 반드시 검은 돼지(豚) 세 마리를 골라 제사상에 올린 점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 3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길수(吉數) 또는 신성수(神聖數)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민족이나 제주에서는 뚜렷한 수 관념을 형성하여 신화에서부터 민간 풍속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수 가운데 수, 최상의 수로 여겨오고 있다는 점이다. 단군신화나 삼성신화에서 수 3이나 삼분구조가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삼재(三才)를 기본으로 우주가 완성된다는 동양사상의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완성과 안정, 조화와 변화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삼성신화에서 탐라의 시조신(始祖神)인 양을나·고을나·부을나가 삼위일체적 존재로 그 신성함을 더하게 된다. 이들 탐라개국 삼신(三神)이 셋이면서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삼일신(三一神)적 인식은 '3은 곧 완성된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단태가 수 3을 사랑의 원리로 이해했듯이 사랑은 곧 종합의 힘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섬 제주도에서 제주인이 삼(三)을 좋아하는 것은 '三'이라는 숫자는 무리(群), 집단, 군중, 화합의 뜻으로 모든 고통과 고독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신(神)의 배려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삼분구조, 삼분사상이나 수 3의 상징성은 세계관, 종교, 생활문화와 생활공간, 출산풍속이나 세시풍속 등 민속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관습으로 정착되어 우리 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삼성신화에서 비롯되어 많은 생활문화와 생활공간이 삼분구조(三分構造)나 삼분사상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민속이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생활 그 자체이므로 고통을 나타내고 화복(禍福)을 예견하는 수가 서민들의 소박한 마음속에 그대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김용운, 수학의 4중주, 한양대학교, 1982
2. 김용운, 김용국, 재미있는 수학여행, 김영사, 1990
3. 마이클 슈나이더,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이충호 역, 경문사, 2002
4. 야마모토 요이치, 불교와 자연과학, 전종석 역, 전파과학사, 1990
5. 이승헌, 천부경과 민족문화, 제주일보 국학칼럼, 2006. 4. 21
6.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증보판), 제주도, 1998
7. 제주도교육청,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8. 존 콘웨이와 라처드 가이, 수의 바이블, 이진주의 1인 공역, 한승, 2003
9. 칼 B 보이어, 유타 C 메르츠바흐, 수학의 역사(상, 하), 양영오, 조윤동 공역, 2000.
10. 허남춘, <삼성신화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11.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On the number three and the structure of trisection in the Samsung myth

Dept. of Math., Cheju National University **Young-Oh Yang**

In this paper, we study the meaning and symbols of the number three and the structure of dividing into three parts in the religions, views of the world and the nature. Also we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number three, and the structure of dividing into three in the Samsung myth. According to legend, the "Three Names" (Samsung-Yang, Ko and Pu) which are three demi-gods emerged from Samsung-hyeol(called Moheung-hyeol), and became the progenitors of the Jeju people who founded the Kingdom of Tamna.

Key words: Samsung myth, Dangun myth, structure of trisection, thought of heaven, earth and man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01A13, 01A80

논문 접수 : 2006년 6월

심사 완료 : 2006년 7월